

## ★ 2018 세종시 유아임용 합격수기 ★

[1차] 논술: 14점 / 교육과정: 73점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하게 된 예비 교사입니다. 합격수기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카페에서 합격수기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저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려 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공부방법이 결코 정답이다!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저는 2016년도에 4학년 재학생이었고, 이 때 민쌤 상반기 이론 강의만 신청해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다보니 강의만 듣고 복습은 못하는 상태로 어영부영 보냈습니다. 경험 삼아 졸업하기 전에 임용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충남'에 지원해서 보았어요!
-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2017년도에 민쌤 1년 패키지를 끊어서 올인 하였습니다. 민쌤을 선택한 이유는 작년에 강의만 들었을 뿐,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민쌤 수업방식이 저랑 잘 맞아서였습니다. 1년을 직강으로 다녔고, '세종으로 지원할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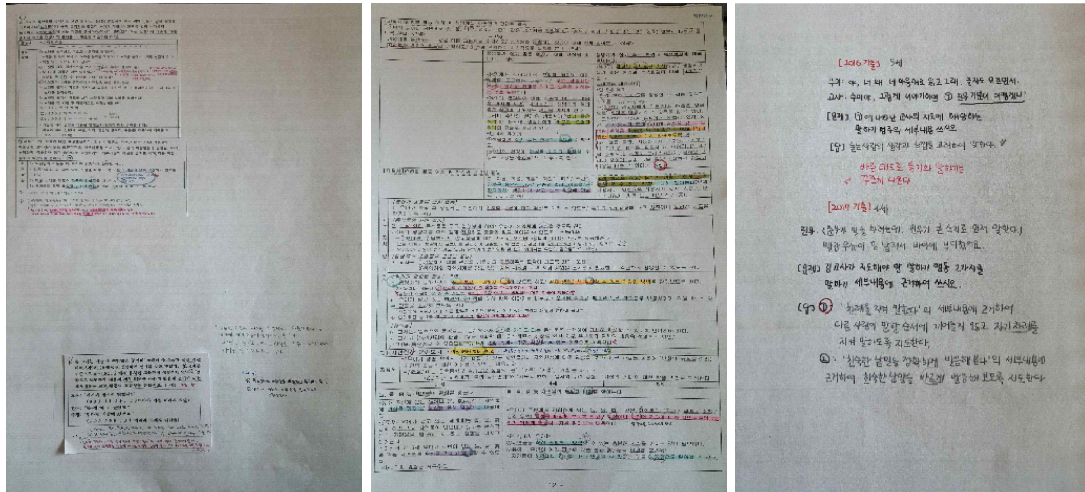
### [1차 공부방법]

#### ① 논술

- 사실 저는 논술 점수를 받고 충격을 먹었습니다.(T\_T) 1차 합격 되어서 기뻐지만, 논술 점수보고 충격을.... 왜냐면 2016년 11월에 경험삼아 시험을 봤을 때, 논술 3번 정도 써보고 시험 봤는데 17점이 나와서 놀랐거든요. 이번에는 1년을 노력했는데 14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딱히 논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공부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논술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민쌤 패키지에는 3월부터 시작인데, 3월에는 거의 서론 쓰기를 하셔서 4월부터 논술 한 편 전체 쓰기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최근 것부터 1200자에 맞춰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써보고, 3M 책을 활용해서 모범답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후, 다시 제 걸 고쳐보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쓴 것을 다시 바꿔서 완벽하게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뒤로 갈수록 이 작업을 많이 안했는데, 꼭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7월 여름부터는 논술을 일주일에 2번 썼습니다. 저는 다른 강사 분 논술은 안 쓰고, 민쌤 것만 썼습니다. 매주 강의를 듣고 새로 고쳐서 써보고, 다음 주 까지 써와야 할 논술 과제도 써보고 이렇게 두 편이요!
- 9월 모의고사 반부터는 거의 매일 논술을 썼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와 민쌤이 그동안 주신 논술 문제를 모아서 하루에 하나씩이요! 시간도 1시간 정해놓고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1시간을 딱 채워서 써보자는 생각보다 55분 정도 쓰고 나머지는 검토하자라는 생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었습니다.

#### ② 해지서

- 저는 해지서를 정말 달달 외우다시피 했고, 문장으로 쓰는 연습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해지서 문제는 모고 때도 거의 다 맞추었고, 실제 시험에 나와도 맞출 자신있다!! 할 정도로요. 제가 사용한 해지서는 '합격생이 만드신 해지합본 자료'입니다. 유아 임용 카페에 자료실에 합격생이 올려주신 해지 합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표 색깔 정리한 다음에 제본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시험 날 까지 보았습니다.
- 해지서는 단면복사를 하여서 왼쪽에는 기출문제를 적거나, 민쌤 문풀 자료나 모의고사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기출을 일일이 복사해서 잘라 붙이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로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서술형 연습도 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 해지서 내용 공부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읽기,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읽기, 검정 볼펜→파란 볼펜→빨강 볼펜→형광펜 등으로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며** 읽었습니다. 해지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면서 읽기’** 입니다! 특히, 해지서를 처음 읽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한 문장 문장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 분들께 추천하기로는, 하루에 한 영역을 읽으려 하시지 마시고, **한 영역을 이틀이나 삼일에 나누어 읽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그렇게 나누어 읽다가 하루에 한 영역을 읽는 정도로 도달했을 때, 처음에는 2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한 형광펜 위주로 읽고 나머지는 빠르게 읽다보니 1시간에 한 영역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 해지서 서술 공부 방식은, 민쌤 강의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민쌤께서 하반기에 해지서 요약자료와 문제를 나눠 주셨는데, 나눠주신 문제를 저는 매일 나누어 3문제씩 풀었습니다. 민쌤 답안과 저의 답안을 비교하면서 서술형 연습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민쌤께서 해지서 강의를 해주실 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서술형으로 풀어서 연습하기도 하고, 말로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 해지서는 **기출 활용(★★★)** 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문제마다 서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해지서 관련된 기출문제만 찾아서 연습했습니다. 완전 적극 추천 !!!

### ③ 고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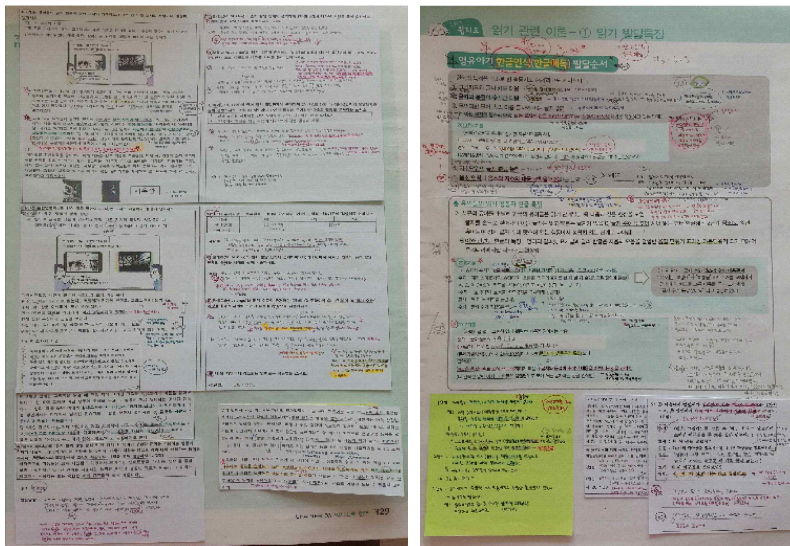
- **[고시문 외우는 방법]** 고시문은 ‘키망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신체부터 총론까지 뽑아서 6장을 묶었습니다. 처음 외울 때, ‘오늘 신체운동영역을 다 외울거야!’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이번 주는 신체운동건강 외우는 날] 로 정해놓고, 월요일은 ‘범주1.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화요일은 ‘범주2.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이렇게 **범주별로 나누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정말 정말 기억에 잘 남습니다! 대신 월요일에 외운 것은 화요일에 써봐야 하고, 월 화요일에 외운 것은 수요일에 써봐야 합니다. 이렇게 **누적되어서** 매일 쓰면 기억에 잘 남아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 영역을 통째로 쓸 수 있게 됩니다!
- 저는 고시문을 2~3월, **두 달에 걸쳐** 외웠습니다. 누리과정 강의 시작 전에 알고 있으면 강의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미 고시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아~그래서 만4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만5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서 강의는 물론, 누리과정 강의를 할 때도 민쌤께서는 가끔 고시문 내용을 이야기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강의를 들을 때 고시문도 함께 옆에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 고시문 외운 순서는 신체부터 자연탐구까지 외우고 총론을 마지막에 외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연탐구와 총론은 거의 4월달에도 외운 것 같습니다. 너무 많고 어려운...(T\_T) 총론은 시험 문제에 대체로 통으로 쓰게 안 나오고 빈칸으로 많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외우시길 추천합니다!

#### ④ 개론과 누리과정

- 개론과 누리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꼭 들었습니다. 1~2월 달에는 '3월부터는 어려운 누리과정 하나까 개론은 미리 정복하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민쌤 개론 책과 확인학습 문제를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복습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강사님 책이나 각론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쌤 개론 책과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았습니다!
- 누리과정 강의를 들으면서도 개론을 조금씩 복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짰으나, 누리과정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개론 복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강의 때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직장을 들으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 **복습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저는 **월-화는 토요일에 배운 내용을 두 분량으로 나누어 꼼꼼히 복습하기, 수-금은 확인학습 문제 풀면서 복습하기로** 진행 하였습니다. 월-화에 충분히 복습한 후, 수-금 동안 확인학습을 풀면, 아는 내용도 보이고 개념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강사님이던 확인학습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확인학습은 **하루나 이를 동안 충분히 책을 복습한 후에!** 풀어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 ⑤ 문제풀이반

- 문제풀이반은 여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때 슬럼프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나, 저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영역을 다룬다는 것에 압박도 있지만 **1~6월 공부를 충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즐거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
- 저는 민쌤 커리를 탔기 때문에 문풀도 민쌤 자료만 보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축소 복사하여 웹지도에 붙였습니다. 특히나, 의사소통 읽기발달과 사회관계 발달단계는 문제 사례 없이는 절대 못 외우겠더라고요 (T\_T). 그래서 민쌤 문제 중 단계 사례가 있는 것은 다 복사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외울 때, 이 사례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려움 없이 모두 외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어려운 단계를 외울 때는 **단계별 유아 사례 적극 활용하기!!! (★★★)**
- ※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의사소통 발달단계를 외우기 위해 관련된 문제를 붙여 놓았고, 이 사례들을 보면서 단계를 저절로 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자롱고, 클레이, 셀즈비 등 모두 완벽히 외울 수 있었습니다!



#### ⑥ 모의고사반

- 저는 모고 순위가 항상 10등 안에는 들었는데,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6월까지의 강의 진도를 따라 책과 자료를 읽고 반복했다면, 문풀반부터는 단권화한 웹지도를 끊임 없이 반복하여야 합니다. **이해는 6월까지 충분히 해두시고** 7월부터는 이해와 더불어 암기를 하신다면 모고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성적이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9월~11월 시기에는 논술 매일 1편씩, 개론 1개와 각론 1개를 요일별로 정해 보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개론	발달이론	놀이이론	부모교육	교사론	사상/복지	교육과정 /모고분석
각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10월 중순까지는 위의 표 대로 진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개론·각론 두 번 돌리기→세 번 돌리기 →시험 전날에는 전체 영역 다보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일주일에 몇 번 돌릴 것인지 분량을 정해서 계획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 **[시험 한 달 전~시험 전 날까지의 마음가짐과 공부(★★★)]** 저는 같은 책만 매일 보는 게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합 격' 만을 생각하면서 놓지 않았어요. 합격한 선배들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것만 보는 것 같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꼭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험 한 달 전에는 공부 안 돼~ 라고들 하세요. 물론 긴장과 불안으로 전보다 더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시험 한 달 전부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 온 것들을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모고 점수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 ⑦ 법

- 법은 기본적인 건 다 봤었어요. **9월 정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식생활, 안전관련법 등등 기출된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봐야할 기본적인 것들이요! 스터디도 잠깐 했었는데, 혼자 하게 되면 절대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스터디 추천 드려요!

#### ⑧ 공부시간

- **1~6월** (개론과 누리과정반) 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월-화는 책 복습, 수-금은 확인학습 풀면서 복습'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4~7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문제풀이 반 들어가기 전까지는 따로 시간을 재지 않았습다.) 하지만 **7월부터**는 웹지도 강의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이때부터는 공부 시간도 늘리기 시작했고 타이며도 했습니다. 보통 7~8시간 했습니다. **9월부터**의 모고 반 때는 평균 9시간을 하였고, 가장 많이 한 것이 11시간이었습니다!
- **[공부시간보다는 질이 중요! 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 제가 처음에 공부시간을 재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타이며로 재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할 분량을 정해놓고 이 분량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오늘 할 분량만 끝나면 자유니까요! 그래서 6월 이론 강의까지는 **'오늘 해야 하는 분량'을 기준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정말 중요한 여름 때부터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재보니 제가 앉아있던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에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재면서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양과 질을 늘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마무리를 지으며...]

- 저는 1년을 민쌤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합격 후에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을 참 많이 떠올렸는데, 이러한 소망이 1년 동안 힘내서 공부하게 해 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민쌤이 말씀해주신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교사로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 시험 보는 그 날! 합격 통지서가 나온 그 날!을 생각하기보다 합격 후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정말 1년의 긴 싸움이지만 지치지 않고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 달려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내서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 ★ 2018 세종 2차 합격수기 ★

[2차] 교수학습과정안: 19.6점 / 심층면접: 34.83 / 수업실연: 36.8 = 91.23

안녕하세요! 1차 합격수기에 이어 2차를 위한 합격수기입니다. 사실 저는 2차 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아요. 특히 면접은...(T\_T) 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과정과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차는 **민쌤 개별지도**를 받았습니다. 총 4~5번을 민쌤께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저는 현장경험도 없고, 초수라서 2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개별지도 받을 신청하였고, 저의 태도나 문제점 등을 지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합격 후에는 **짝스터디**를 구해서 2차 시험 이를 전일까지 **매일 만나 연습**했습니다. 저는 짝스터디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평일에는 4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6~8시간 만났습니다. 평일 4시간 동안에는 한 사람당 수업 2번, 면접 1~2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한 사람당 수업 4번과 면접 2~3번 하였습니다. 시간에 비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① 교수학습 과정안 (19.6/20)

- 세종시는 작년까지 5년 동안 단위수업계획안 2번 나왔고, 일일계획안이 3번 나왔어요. 2번 나온 단위수업계획안도 제가 알기로는 모두 '동극'이었어요. 그래서 세종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일계획안이 나올지, 단위수업계획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해야 합니다. 둘 다 1시간 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연습해야 합니다. (이번 년도에는 만 4세 단위수업계획안이 나왔고, **활동유형은 자유**였습니다.)
- **[준비해야 할 것]** 저는 일단 단위수업계획안과 일일계획안 틀을 만들고, B4 용지로 복사하였습니다. 세종은 줄이 쳐져 있지 않아요. 계획안 틀만 주기 때문에 틀만 제가 만들어서 복사하였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은 **활동유형별로 만능틀**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극은 '동화 회상-소품과 배경 정하기-동선 정하기-역할 정하기-약속 정하기-첫 번째 동극-중간평가-재동극' 이런 식으로요! 틀을 먼저 정해놔야 그 틀에 맞추어 단위안을 쓸 수 있습니다. **일안도 마찬가지로 틀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밑의 표와 같이 만들어두면, 문제에서 제시된 **생활주제-주제-소주제에 맞추어 자유선택활동 내용과 대소집단 활동만 짜고, 나머지는 틀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수월할 것입니다.

시간/활동	활동목표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09:00~09:10 등원 및 인사나누기	-친구와 선생님께 예의바르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자신의 소지품(가방, 옷 등)을 바르게 정리한다. -오늘의 날씨를 알아본다. -오늘의 하루 일과를 알아본다.	자) 요일판, 일과표 유) 유아가 자신의 소지품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는다. 유) 부모로부터 유아에 대한 정보 (약, 건강상태 등)를 전달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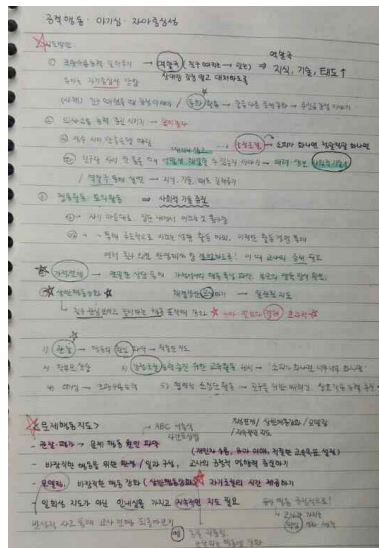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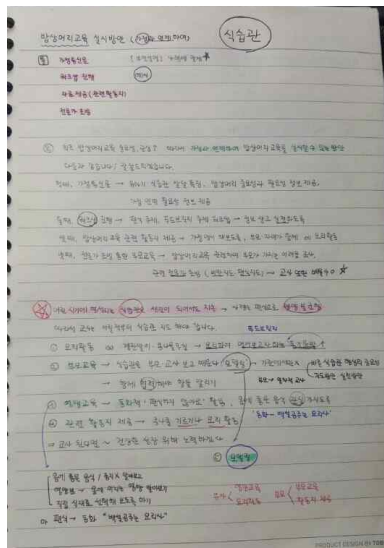
- **[단위안 준비방법]** 단위안은 활동유형이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 모두 써봐야 해요. 동극, 신체, 동시, 이야기나누기, 바깥놀이, 게임 등등... 1차 합격발표가 나기 전까지 활동유형별로 만능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틀에 맞추어 단위안을 많이 써본다면, 수업실연도 수월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단위안이 시험으로 나올 경우에는 창의인성 요소, 누리과정 관련요소, 활동목표, 생활주제-주제-소주제가 모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이 포함되도록 활동을 구성**하셔서 도입-전개-마무리를 쓰시면 됩니다.
- **[일안 준비방법]** 저는 '유치원과 친구'부터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모든 생활주제를 1~2번씩 일일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일안은 자유선택활동 영역 내용을 쓰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생활주제~소주제를 보고 교구도 창작하고 써야 하나까요 (T\_T) 그래서 1차 발표 후, 매일 하나씩 써보았습니다.
- **[2018학년도 시험]** 이번에 세종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4세로 나왔고, 활동유형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만 5세로만 연습해서 매우 매우 당황했고, 활동유형 자유에 더 당황했고, 계획안 틀도 없이 백지로 나와 더 당황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 빨리 도입-전개-마무리 선을 만들고, 활동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나와 다른 친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안다. / 찾아본다. / 존중한다.'



이렇게 3가지로 제시되었고, 활동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나누기와 미술 연계' 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야기나누기로 준비물을 '거울'을 준비하여 두 명씩 짝을 지어주고 (만 4세이고 학기 초라 모둠활동은 어렵다고 생각) 거울을 서로 보면서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나누는 활동을 전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술활동으로 '짝 친구가 좋아하는 것 그려주기' 활동을 한 후, 다시 대집단으로 모여서 발표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친구와 나의 차이점을 존중하지 않는 유아의 반응을 일부러 넣어서, 존중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까지만 쓰고, 평가와 확장활동은 쓰지 않았습니다!

## ② 심층면접 (34.83/40)

- 세종은 구상형 1문항과 즉답형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상실로 가서 1문항을 **15분 동안** 답변 준비를 하고, 바로 평가실로 들어가 면접이 진행됩니다.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 책상에 파일이 올려져 있고, 열자마자 3문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읽은 후,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면접은 1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15분 동안** '구상형 답변 말하기 / 즉답형 1번 문제 읽기 / 즉답형 1번 문제 답하기 / 즉답형 2번 문제 읽기 / 즉답형 2번 문제 답하기 / 즉답형 3번 문제 읽기 / 즉답형 3번 문제 답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심층면접 준비방법] 저는 '**합격해도 괜찮아**' 책을 활용하였습니다. 책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최근 유형만 골라서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민쌤이 주신 자료도 활용했습니다. 합격해도 괜찮아 문제와 민쌤이 주신 문제를 활용해서 짝스터디를 통해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실제 면접처럼 15분 구상, 15분 답변을 한 다음, 스터디원과 함께 답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답안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더 나은 답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후, 저는 재정비된 답안을 저의 **면접 노트에 정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저의 면접 노트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말로 풀어서 답변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이 노트만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두괄식이 중요해요! 면접관들한테 딱딱 들리거든요. '첫째, ~입니다.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 예시로 두 장을 올려드리면, 첫 번째 사진은 식습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 활동하기 / 부모교육하기 / 식생활교육하기 / 가정에 관련 활동지 제공하기 등으로 틀을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공격행동, 이기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도방안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조망수용능력 길러주기 / 의사소통 능력 지도하기 / 협동 활동 제공하기 / 가정 연계하기 / 상반행동 강화하기 등으로 답안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1차 공부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저는 2차를 준비하면서 계획안에, 면접에, 수업 준비를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만약 2차에 떨어져서 다시 임용을 준비해야 한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2차도 함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초수 분들께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T\_T) 면접은 대략 '부모 상담 / 문제행동 유아 지도방안 / 교사론 / 생활지도 (바깥놀이 지도 등) / 다문화 / 장애통합' 이렇게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의 최근 문제는 **사회적 시사 문제**도 추가 되었지요. 시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위의 내용들은 사실 **1차 때 모두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면접이 어려운 것은 이것을 말로 풀어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이러한 내용을 눈으로 보고 넘기는 것

이 아니라 제가 위에서 만든 것처럼 **면접 노트를 만들거나, 말로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정리만 해봐도 1차 끝나고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때 공부하면서 면접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보고, 간단히 정리해 놓는 것**이지요!

- **[2018학년도 시험]** 저의 면접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못했거든요. 구상형은 어찌어찌 잘 대답했는데, 즉답은... 총 12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가지~8가지 정도만 맞게 해준 것 같아요. 즉답 1번과 3번이 '~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라는 것이었는데, 4가지씩은 도저히 생각이 안나서 T\_T... 그래도 가질수는 꾸역꾸역 채우고 시간도 4초 남기고 끝냈습니다. / 저는 면접관 5명 중 1명만 저를 아주 뚫어져라 보시고, 나머지 4분은 계속 무엇인가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얼굴을 못 봤네요. 그래도 한 분이 절 뚫어져라 보셨기 때문에 **시선은 5명 모두에게 골고루**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답변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티내지 않고, 웃는 인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세종은 15분이 카운트다운 되고, 2분이 남았을 때, 종을 쳐주시는데, 종소리가 커서 말하다가 놀랐습니다. 그래도 잠시 멈추고 차분히 답변을 이어 나갔습니다.

### ③ 수업실연 (36.8/40)

- 세종은 15분 구상, 15분 실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종은 '**도입-전개**'만 보여 달라고 하고, 마무리는 문제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업실연 연습을 할 때도 저는 15분 동안 전개까지 하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제가 연습한 유형은 게임, 동극, 이야기나누기, 바깥놀이, 동시, 새노래, 음악감상, 미술감상, 미술표현, 신체, 역할, 쌓기, 과학, 요리 등입니다. 짝스터디 쌤 계획을 짜서 모든 유형을 많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 **[수업실연 준비방법]** 스터디 쌤과 함께 **5세 지도서**를 가지고 연습하였고, 스터디 쌤께서 '**모모의 희망**' 책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로도 해보기도 하고, 지도서에 있는 활동을 뽑아서도 연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건** (예를 들어, '반에 다문화 유아가 있다고 가정하시오. / 팔을 다친 유아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시오.' 등)을 추가하여서 **조건 빠트리지 않고 실연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채점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실연을 하고 있을 때, 스터디원이 저의 수업을 보고, 목표와 누리과정 관련요소, 조건 등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체크하고 피드백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연습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현장경력 없는 초수분들!)]** 한 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많이 수업을 연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의 수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잘하시는 분의 실연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확 보이거든요. 중간에 주의집중 노래를 사용한다든지, 말의 흐름이나 높낮이가 적절하고 생기 있어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쌤께서는 두 분의 초청강사분의 실연을 매주 보여주셨는데, 저는 동영상으로 이 분들의 수업을 보면서 말의 어투나 손짓과 같은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짝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쌤의 수업을 보면서 수업의 진행과정이나 방법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 **[2018학년도 시험]** 세종에서는 '유치원과 친구' 주제로 이야기나누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반 약속 정하기'가 주제였고, '유아들이 블록으로 싸운 상황,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넘어져 다친 유아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 (1) **도입:** 저는 먼저 도입으로 자리에 대해 언급을 한 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속상한 일이 있었고 시작하였습니다. 쌓기놀이 영역에서 유아들이 블록으로 싸운 상황을 보고 속상했다는 것을 이야기 한 후, 자연스럽게 약속의 필요성을 다루고 약속 정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 (2) **전개:** 실연 문제에서 주어졌던, '블록으로 싸운 상황' 과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 **사진이 있다고 가정**한 후, ①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필요한 약속에 대해 대집단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정한 뒤, ② 이 외에도 우리 반에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 후, **모둠별로** 상황 한 가지씩을 맡아 약속 정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③ 저는 3모둠을 가정하였지만, 시간을 보니 모자를 것 같아서 2모둠만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자 모듬은 바깥놀이를 가거나 화장실을 갈 때, 줄을 서서 가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었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하면서 상호작용 하였고, "기린 모듬은 교실에서 TV나 컴퓨터를 볼 때,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라고 시작하면서 상호작용

하였습니다. ④ 이후에는 발표 시간을 가져서 모두가 발표를 하고, 앉아있는 유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여 유아들끼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도 보여주었습니다.

-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아, 그래도 수업이라도 안 망쳐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점수가 조금 적게 나왔지만, 제가 도입 때 주의집중 노래나 손유희 등등을 활용하지 않아서 더 깎였을 것 같습니다 (T\_T) 대신,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눈 후, 발표를 위해 다시 대집단으로 모일 때, ‘00반 모여라~ 모여라~’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엄청 떨렸습니다.)
- [실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수업이 아니라 **유아 주도적인 수업!** 유아의 답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유아의 말을 **경청해주고 있다는 표현**도 해야 합니다. 저는 손짓을 사용했는데, 한 손을 귀에 대고 유아의 말을 듣는 척을 했습니다. 2초 정도 듣는 척을 한 후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00이는 그렇게 생각했군요. 다른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요! 또한, 항상 웃는 것도 매우 중요!!! **가벼운 미소**를 계속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 [1차 공부를 하면서 수업실연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사실 수업실연 준비는 1차와 병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수 분들께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2차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만능틀과 수업연습을 해보신 분들일테니까요. 저는 초수 분들께는 과감히 수업실연 준비를 1차와 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차이긴 하지만요. 수업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과정안 연습을 하실 때, 과정안 쓰신 것을 한 번 수업해 보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수 분들이시라면, 1차 올인하셔서 최대한 1차 고득점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2차 변별이 높다 해도, 최종합격은 1차 점수와 합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고득점이 우선(★★★)**입니다!!!!

## 2차를 마치고...

- 저는 사실 수업실연은 맨 마지막 번호를 뽑았습니다. 정말...정말...8시 40분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 마지막 번호를 보고 엄청난 절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5시까지 기다리다가 5시에 구상실에 들어가서 5시 30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나오니 ‘이제 정말 끝났다!!!’ 라는 생각과 함께 감정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2차 준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은 결코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힘든 과정 곳곳하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현장에 나가서 교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소망으로요!